

## 上水道の信賴回復

〈上下水道技術士・本會監事〉

林 性 基

우리나라 上水道の 歴史를 뒤돌아 보면 80餘年 그다지 길지도 않은 歲月이지만 그동안 上水道가 겪었던 波瀾은 어느 分野보다도 迂餘曲折도 많았으며 또 오늘날의 福祉社會俱現과 國民保健向上에 寄與한 바 그 比重도 莫重함은 事實이다.

많은 人類가 安樂한 삶 以前에 生命을 維持하기 위하여도 絶對 必須不可缺한 것이 물이고, 그 물을 必要에 의해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가 安全하게 싼 값으로 飲用할 수 있는 것이 上水道の 使命이라 한다면 우리나라의 上水道가 걸어온 발자취는 어떠하였는가?

生覺하기조차도 소름이 끼치는 6.25 動亂 이후 많은 사람들은 都市로 모여들고 人間으로 生을 維持하기 위한 最善의 手段으로 方法을 가리지 않고 억척스레 살아야겠다는 執念으로 一貫한 結果 오늘날의 富를 追求하게 되었으나 그러한 逆境의 裏面에 보이지않는 公恨을 水道가 擔當하였던 것도 否認 못할 事實이다. 都市로 물려든 많은 사람들의 生活用水需要와 人口增加에 비해 上水道の 生産施設擴充은 比較할 수 없는 貧弱한 狀態에서 需要供給의 均衡이 維持되지 못하다 보니 上水道の 本分은 履行되지 못하고 適期에 適量의 물 供給이 되지 않아 時間制給水, 隔日制給水라는 非正常的인 給水方法이

不可避했던 時期를 겪으면서 上水道는 需要家들로부터 信賴를 잃기 始作하여 오늘날까지도 不信風潮가 持續되어왔다고 생각된다.

많은 사람들이 特定地域에 모여 살게되면 消費도 많아지고 쓰고 남은 廢棄物, 排世物은 適切한 處理가 안된 狀態에서는 上水道の 原料인 水源의 汚染을 增加시키고 옛날에는 그냥 飲用하던 河川水나 地下水는 汚染된데 비해 淨水處理施設은 改善이나 改良할 餘裕도 없이 最大로 稼動되면서 時間制, 또는 隔日制給水 등의 影響으로 配給水管內部가 비어있는 동안 敷設한지 오래된 老朽管의 이음부분 또는 破損된 部分을 通해 外部의 汚水가 浸入하여 給水開始때는 汚水가 混合된 不良한 水道水가 給水되던 지나간 時節, 水道栓에서 지렁이가 나오고 異物質이 나오던 그 當時의 水道水는 質的으로 絶對로 믿을 수 없다. 반드시 끊어 마셔야 한다는 異例的인 新造語가 생겼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急激한 産業化의 물결은 물 需要를 急増시켜 물 事情을 더욱 더 惡化시켰고 大都市의 많은 사람들은 時間制給水의 惠擇으로 물받는 日課가 生活에 主要部分을 차지했으며 물장사가 盛行했던 當時 水道水의 質은 枯捨하고 量을 優先하던 때가 있었던 만큼 우선 需要充足에만 及及하면서 近代化가 되다보니 그 當時의 水道에 대

한 不信이란 過히 想想할만 하며 그러한 좋지 못하였던 印象이 오늘날까지도 水道를 不信하는 風潮의 原因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과연 오늘날의 上水道는 어떠한가? 上水道의 量的需要는 어느程度 充足되었다고 보며 處理方法도 原水水質에 따라 각기 最善의 方法을 채택하여 계속 改良中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上水 原水의 주된 水質汚染 要因인 都市下水, 糞尿 등은 國民의 意識水準 向上과 經濟的인 뒷받침에 힘입어 계속 處理施設을 擴充하고 安全한 處理를 위해 最善을 다하고 있으나 大多數 水道水의 利用者는 아직도 水道水에 대한 不信感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現實이다. 뿐만아니라 많은 家庭에서 〇〇물, 〇〇약수 등 여러종류의 人造水가 商品化되어 盛業中이고 市民들의 上水道 不信感을 이용한 알파한 商術은 〇〇정수기, 〇〇水製造裝置 등의 이름을 붙여 여러가지 形態의 2次 淨水處理機器를 적당히 高價의 商品으로 各家庭에 많은量이 깊숙히 침투되어 있는 現實下에 과연 水道水는 그렇게

不信할 狀態인가? 그와 같은 人造水가 아니면 또한 2次淨水處理器를 설치하지 않으면 給水栓에서 나오는 水道水를 안심하고 飲用할 수 없는지?

水道를 供給하는 水道事業者나 그를 사용하는 우리 需要家は 此際에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을 提議합니다. 앞서 말한 淨水器나 人造水處理器에 쓰여진 金額이 얼마나 되는지 推定하기 以前에 水道事業者는 이러한 事實을 默過하고 있어야 할것인지? 아직도 많은 사람에게 不信을 받아야 할 水道라면 이를 拂拭하기 위해 果敢한 措置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제는 安心하고 水道水를 飲用하여도 無害하다고 하면 이를 보다 效果的인 弘報를 통해 널리 認識시켜 必要없는 浪費를 豫防하는 것이 무엇보다 時急한 課題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무쪼록 우리의 日常生活에 꼭 必要한 上水道가 需要家の 두터운 信賴를 받는 날이 하루 빨리 이룩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